



Gachon Pride

가천대 의과대학 / 의전원 소식지 | 제20.21통합호 | (2017. 12.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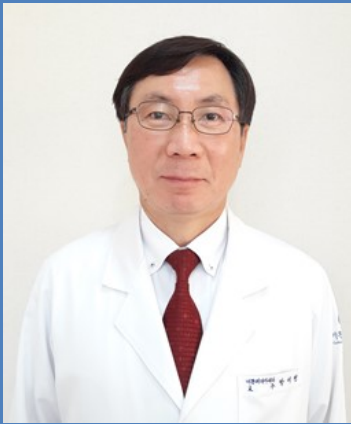
가천의대, 제2의 도약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

계간 발행

투고 및 구독신청
medi-pr@gachon.ac.kr

취임사



의과대학장/의전원장
박이병 교수

존경하는 가천대 의대/의전원 재학생, 교수, 교직원 및 동문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부로 가천대학교 제6대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과대학장의 중책을 맡게 된 박이병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숙원사업이었던 의과대학/의전원 단독 건물이 8월 중순에 완공되

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부근에 대지면적 770평 부지의 지하 6층, 지상 10층 연건평 7,300평 규모로 강의실과 실험실을 포함하여 최신식 기초, 임상 연구시설과 임상수기센터 등이 완비되어 학생, 교수 및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축시설은 우리 학교의 설립자이신 이길여 총장님의 『21세기 글로벌 의료인재 양성』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으며, 그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학업에 노력해 준 학생들과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또한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 의전원/학장으로서는 몇 가지 업무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전원에서 의과대학으로의 완전 전환이 되는 2025년을 기준으로 명실상부한 (가칭) <2025가천의학 교육과정>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의예과 2년 교육과정을 의학과 4년 과정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졸업 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의사”,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의사”를 만들어 『21세기가 요구하는 통합형 글로벌 의료 인재』를 배출하고자 합니다.



Gachon Pride

가천대 의과대학 / 의전원 소식지 | 제20.21통합호 | (2017. 12. 04.)

취임사

이를 위하여 의예과 2년과정과 의학과 4년과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임상상황을 조기에 노출시킬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재조정하겠습니다. 임상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임상실습과 OSCE 교육부분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배정하겠습니다. 또한 졸업 후 의학교육과정이 강화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의과대학 의학과 4년 교육과정에 연이어 수련병원인 길병원에서의 수련 교육과정과 지역의료 기관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가칭 G11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초연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의과대학 간의 상대평가는 기초연구업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임상진료의사로 기초연구에 대한 경험이나 실적이 다소 미흡합니다. 하지만 우리학교에는 연구역량이 우수한 기초교수님들이 다수 포진하고 계셔서 자주 뵙고 합리적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연 4회 이상 기초교수님들을 만나 뵙고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말 발표되었던 우리 대학의 연구 업적 수준은 중하위권입니다. 부탁에 말씀 올리면, 교수님, 한 분 한 분, 조금 더 연구업적의 수준을 높이도록 분발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셋째, 교수님과 재학생, 졸업동문 및 교직원의 내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통의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비용과 인원, 및 시설물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일부 구성원들에게 다소 불만스럽고 소원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처리되는 일들이 많아지면 조금 더 불편해지고 우리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나 소속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모든 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정례적으로 마련



Gachon Pride

가천대 의과대학 / 의전원 소식지 | 제20.21통합호 | (2017. 12. 04.)

취임사

마련하겠습니다.

내년 2018학년도는 우리학교 개교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여정이 의전원/의과대학의 정착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제 2의 도약기로 우리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제 2의 도약기를 맞이하여 우리 학교는 다양한 노력과 행사를 준비 중이며, 의대신축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가천의대 20년사 발간, 동문들을 위한 홈 커밍데이 행사 등을 계획 중입니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재학생들의 학업활동과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의실과 기초의학실험실, 임상수기센터(ASK센터), PBL실, 소그룹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도서관 시설 및 관련도서 확보, 동아리실 확장, 체력단련실 등을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교수님들과 재학생,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을 돕고자 동물실험실, 임상의학연구소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우리 의과대학은 단독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각종 시설이나 장비 등이 갖추어지면서 21세기를 이끌 의학교육과 생명연구의 산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학업환경이 쾌적하지 못하여 오랜 기간 동안 감내해주신 학생, 교수 및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새롭게 입주한 신축의대 건물에서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가천의전원/의대 가족 여러분!

우리 학교가 국내 제 1의 의학교육 기관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귀 기울이며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박이병 拜上



Gachon Pride

가천대 의과대학 / 의전원 소식지 | 제20.21통합호 | (2017. 12. 04.)

학교소식

의대/의전원 신입보직자 발령 (7/1일자)

| 보 직 명 | 소 속 / 전 공 | 성 명 |
|---------------------------|----------------|-------|
| 의과대학장 겸 의전원장 | 의학과 / 내과학(내분비) | 박 이 병 |
| 교무부학장 겸 부원장 겸 의학과장 | 의학과 / 신경과학 | 이 영 배 |
| - 교무부장 | 의학과 / 내과학(심장) | 오 병 천 |
| 학생부학장 겸 부원장 | 의학과 / 흉부외과학 | 이 재 익 |
| - 학생부장 | 의학과 / 직업환경의학 | 최 원 준 |
| 연구부학장 겸 부원장 | 의학과 / 정신건강의학 | 강 승 걸 |
| - 연구부장 | 의예과 / 미생물학 | 정 윤 재 |
| 의학교육부학장 겸 부원장 | 의학과 / 비뇨기과학 | 정 한 |
| - (기초)의학교육부장 | 의예과 / 의학교육학 | 박 귀 화 |
| - (임상)의학교육부장 | 의예과 / 병리학 | 안 정 석 |
| 기획부장 | 비뇨기과학 | 오 진 규 |
| 의예과장(직무대리) | 의예과 / 생화학 | 박 우 재 |
| 의예과 1학년 지도교수 | 의학과 / 신경외과학 | 손 성 |
| 의예과 2학년 지도교수 | 의학과 / 흉부외과학 | 김 건 우 |
| 의학과 1학년 지도교수 | 의학과 / 정형외과학 | 최 은 석 |
| 의전원 2학년 지도교수 겸 통합교육위원장 | 의학과 / 내과학(호흡기) | 이 상 민 |
| 의전원 3학년 지도교수 겸 임상실습위원장 | 의학과 / 가정의학 | 김 경 곤 |
| 의전원 4학년 지도교수 겸 국시대책위원장 | 의학과 / 외과학 | 강 진 모 |
| 국제협력센터 센터장 | 의학과 / 내과학(소화기) | 김 윤 재 |
| 임상시뮬레이션 센터장 | 의학과 / 외과학 | 정 유 승 |
| 임상시뮬레이션 센터 부장 | 의학과 / 외과학 | 양 준 영 |



Gachon Pride

가천대 의과대학 / 의전원 소식지 | 제20.21통합호 | (2017. 12. 04.)

학교소식

2017학년도 하반기 신입교원 발령

2017년 10월 1일자로 의예과 병리학 전공 김영혜 교수, 약리학 전공 신동성 교수, 의학과에 가정의학 전공 이규래 교수, 내과학(내분비) 전공 이기영 교수, 마취통증의학 전공 김경미 교수, 신경과학 전공 양지원 교수, 영상의학 전공 홍민지 교수, 직업환경의학 전공 함승헌 교수, 외상학 전공 최강국 교수가 신규 임용되었다.

이로서 우리 의과대학은 임상의학교원 205명, 기초의학교원 40명(병리학 전공 교수 포함), 인문사회의학교원 6명으로 총 251명의 전임교원을 확보하게 되었다(2017.12.01.현재).

| No | 소속 | 직급 | 성명 |
|----|----------------|-----|-----|
| 1 | 의예과 / 병리학 | 조교수 | 김영혜 |
| 2 | 의예과 / 약리학 | 조교수 | 신동성 |
| 3 | 의학과 / 가정의학 | 교수 | 이규래 |
| 4 | 의학과 / 내과학(내분비) | 부교수 | 이기영 |
| 5 | 의학과 / 마취통증의학 | 조교수 | 김경미 |
| 6 | 의학과 / 신경과학 | 조교수 | 양지원 |
| 7 | 의학과 / 영상의학 | 조교수 | 홍민지 |
| 8 | 의학과 / 직업환경의학 | 조교수 | 함승헌 |
| 9 | 의학과 / 외상학 | 조교수 | 최강국 |

학교소식

포트폴리오 기반 멘토링 프로그램 워크숍



- 1차 2017.08.16.(수), 합동강의실
- 2차 2017.08.22.(화), 합동강의실

포트폴리오 작성지도 및 멘토링 내용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체계적인 학생 지도관리를 위해 멘토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을 시행하여 교수들의 수준 향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소식

2017학년도 폭력예방 통합교육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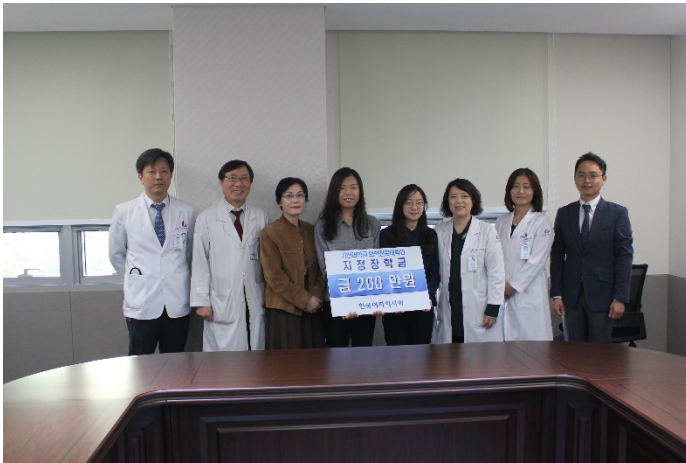


- 일시: 2017.09.16.(토) 13:00~
- 강사: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문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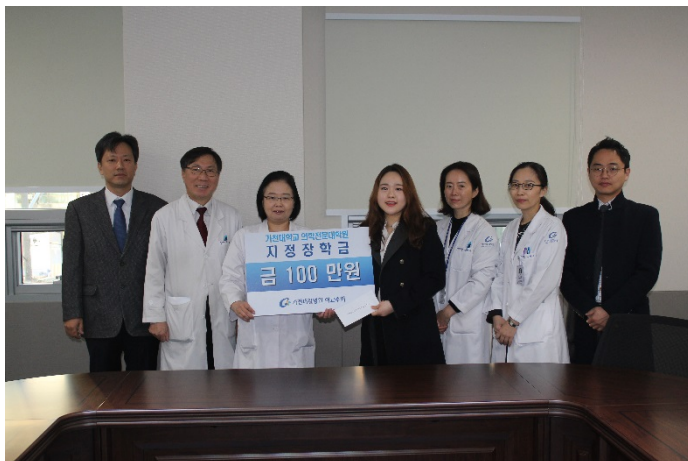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 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년간 위계에 의한 폭력 내용을 포함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소식

장학금 전달식



지난 10월 24일 의과대학 2층 회의실에서 한국여자의사회 인천지회(지회장 전용순 교수)의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수혜학생은 2학년 강지수, 박혜민 학생이었으며, 한국여자의사회 인천지회에서는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여 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 학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4일에는 가천대 길병원 여교수회(회장 조은경 교수)에서도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수혜학생은 2학년 양서현 학생이었으며, 여교수회 역시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여 학생들

의 학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수동정

백혜정 교수, <올해의 존경받는 병원인상> 수상



백혜정 교수가 지난 4월 20일에 열린 '병원신문' 창간 기념식에서 '2017년 존경받는 병원인상'을 받았다. 대한 병원협회와 '병원 신문이 수여하고 종근당이 후원하는 상이다.

백교수는 현재 대한검안학회 회장으로 시력굴절에 관련된 학술,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한안과학회 수련고시위원, 사시, 소아안과연구회 학술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안과전공의 교육에 기여했다

기사 원문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52127005&code=900303

관련기사, 병원신문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876>

관련기사,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39>

교수동정

이재훈 교수, 제1회 아시아 골수종 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혈액내과 이재훈 교수는 2017년 10월 13~1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인 제 1회 아시아 골수종 연구회 학술대회(Asian Myeloma Network Summit)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 단체는 국제 골수종 재단 (International Myeloma Foundation)산하의 연구 기관으로서 2011년 설립되었으며, 다발골수종 연구회가 있는 한, 중, 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7개국이 참여하여 수많은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006년 이교수가 창립을 주도한 한국다발골수종 연구회 (KMMWP)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 모임에는 옮겨버인 말레이시아를 포함해서 아시아 8개국에서 100명의 다발골수종 전문 교수들과 미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에서 특별히 초청한 5명의 연자 그리고 환우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본 행사는 이후 매년 개최하기로 결정되어 내년에는 중국에서 개최된다.

이재훈 교수는 AMN의 실행위원회의 한국측 대표로서 이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책임지고 진행하여 국내외적으로 우리 병원과 의대의 위상을 다시한번 드높혔다.

교수동정

신미승 교수팀, Gachon Echo Review Course 개최



심장내과 신미승 교수팀은 2017년 9월 10일 길병원 가천홀에서 “Gachon Echo Review Course”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강좌는 250명의 외부 선생님들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이루어졌는데, 경인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 통영, 안동 등 전국에서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과목 선생님들이 연수강좌를 듣기 위해 참석하였다. 이는 가천대가 전국적 교육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의료인 교육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교수동정

김석영 교수, 제53회 일본 주산기-신생아학회 초청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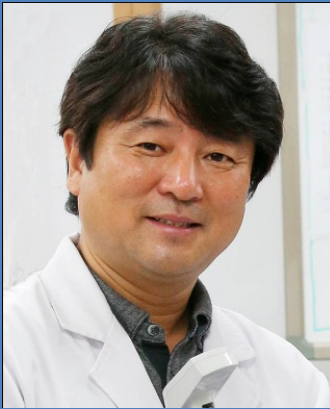
산부인과 김석영 교수가 2017년 7월 17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53회 일본 주산기-신생아학회 학술대회에서 초청 연자로

“The management and outcomes of placenta adhesion”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현재 김교수는 대한주산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우리 길병원이 2017년 정부의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유치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고, 내년 1월 개원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앞으로 인천지역 고위험 산모 신생아의료 분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수동정



해부학 주임교수
이봉희 교수

우수논문 발표 및 대형연구비 수주

의예과 이봉희교수가 최근 세계적인 의약분야 학술지인 세 곳에 교신저자로 세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먼저 사람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에 Zinc Finger Nuclease유전자 교정 기법을 이용하여 염증억제 인자 중 하나인 sRAGE를 분비하는 중간엽줄기세포 (sRAGE secreting MSC)를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허혈성 하지질환 및 치매에 투여한 결과, 치료 및 예방효과가 일반 줄기세포에 비해 월등히 증가됨을 Brain, Behavior and Immunity (Impact factor = 5.96) 및 NATURE publishing group 의 Scientific Reports (Impact factor=4.85)에 보고하였다.

또한 사람만능줄기세포에서 질량분석법을 이용하여 ISL+를 바이오마커로 발굴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리한 줄기세포들이 다른 줄기세포들에 비해 급성심근경색에 치료효과가 우수함을 밝혀 CELL 지의 자매지인 Stem Cell Reports (Impact Factor=7.34)에 게재 하였다. 이 논문들에서 저자들은 신경계(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심혈관계(심근경색, 하지허혈) 및 관절염 등 주요 난치성 질환에서 대식세포(macrophage)가 활성화 된 후 합성분비하는 AGE-albumin이 공통적으로 병의 원인을 제공하며 이를 표적으로 한 예방 및 치료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보고하였다.

또한 올해 후반기에 한국연구재단으로 부터 중대형 연구비도 수주한 바 있다. 즉 급성심근경색시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바이오마커인 Troponin-I가 초기 며칠에만 검출되어 이후 환자의 예후를 확인하기에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AGE-RAGE기반 예후 검증용 바이오마커 발굴 및 줄기세포 치료 예후 검증용 바이오마커 개발 목표로 다년 과제에 총괄책임자로 년 7.5억씩 4년간 총 30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툴젠과 함께 줄기세포 및 CRISPR/Cas9 유전자 교정 기법으로 '유전성 B형 혈우병(Hemophilia B)'과 '헌팅턴병 (Huntington's disease)'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한 5년 과제에 년10억씩 총 50억원 과제를 수주하여 세부책임자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교수동정

류일 교수, KOICA 라오스 소아청소년과 의사 강의



소아청소년과 류일 교수가 17년 11월 13일~17일 라오스에서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협연하여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대상으로 I-HOPE project를 주제로, 특히 소아 장질환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최근 라오스는 수도 비엔티안에 아동병원 교육훈련센터를 개원하는 등 소아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글로벌협력의사를 모집하는 등 국제사회 교류에 힘쓰고 있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소아 장 질환 강연 후 심도있는 질문과 토의가 있었으며 국경을 넘어 허물없는 지식의 장을 보여주었다.



Gachon Pride

가천대 의과대학 / 의전원 소식지 | 제20.21통합호 | (2017. 12. 04.)

의국동정

심장내과, 가천심혈관연구소 FIC2017 관련

가천심혈관연구소(소장 정욱진)와 스탠퍼드심혈관연구소(소장 Joseph Wu) 주관으로 'Frontiers in Cardiovascular Medicine 2017(이하 FIC2017)'이 7월 7일(금)에 미국 캘리포니아 스탠퍼드대학교 Falk Center Auditorium에서 개최되었다. FIC 심혈관국제심포지움은 2014년을 시작으로 올해 네 번째로 매년 양교에서 교차 개최되고 있으며, 심장혈관분야의 기초중개외학과 임상외학에 걸쳐 최신 연구 결과를 교류하고 실질적인 상호협력연구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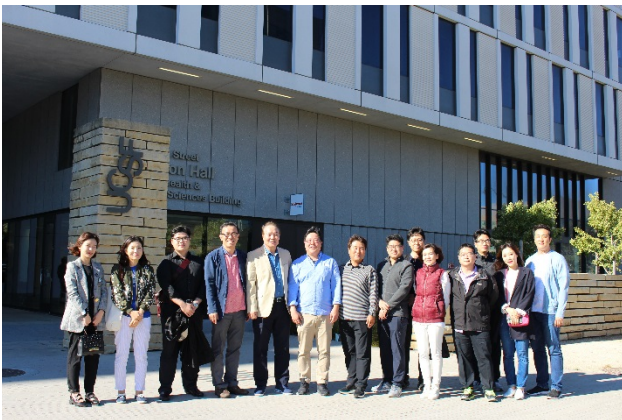
올해 FIC2017에서는 스탠퍼드에서 12명, 국내 13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강의, 토론과 함께 협력연구 방안을 논의 하였다. 특히, 폐동맥고혈압에서의 줄기세포 및 엑소좀 치료분야에서는 전날인 7월 6일에 Edda/Roham/Marlene Lab과 Philip Yang Lab 의 Lab meeting에 각각 참여하여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심장영상 분야의 새로운 협력 연구를 위하여 세계 최초의 휴대용 무선초음파기기 SONON300C/L의 개발자인 류정원 가천대 겸임교수겸 힐세리온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제품개발 내용에 대한 강의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정욱진/정준영/한예지/김경남 교수팀은 차세대 초고해상도 심장자기공명영상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협력방안을 발표 하였다. 올해 처음 시설된 "Future of Stanford-Gachon Collaboration" session을 통해서 폐동맥고혈압(PAH)과 Cardiac Imaging 분야의 실질적 협력연구를 위한 심층 논의를 진행하였고, 특히 폐동맥고혈압(PAH)의 세계적 대가인 Marlene Rabinovitch 교수가 참석하여 정욱진 /

의국동정

심장내과, 가천심혈관연구소 FIC2017 관련

변경희 / 손국희 교수팀과 함께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심증표현형 및 바이오뱅크 정보 교환 등에서 긴밀한 협력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작년 FIC2016은 2016년 7월 8~9일 가천대 길병원 가천홀에서 스탠퍼드 의대 12명의 교수를 비롯해 국내외 82명의 교수진, 8개국 총 487명의 보건 의료전문가가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내년에도 FIC2018은 2018.7.6.-7. 인천 가천대길병원 가천홀에서 대한폐고혈압연구회(KPHS) 국제 심포지움과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의국동정

소아청소년과, 2017년 지역주민을 위한 시민강좌 개최



소아청소년과에서 인천 지역 주민과의 교류와 올바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2017년 10월 21일 어린이병원 세미나실에서 제 1회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시민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저체중 출생아의 성장과 영양'을 주제로 소아청소년과 안정민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으며 별도의 Q&A 시간이 마련돼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강좌에서는 ▲하루 8시간 수면 ▲하루 30분 이상 운동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충분한 일조량 ▲건강 식단 등 어린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5계명을 비롯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상세히 다뤄졌다.

한편, 다음 시민건강강좌는 12월 23일 가천어린이병원 세미나실에서 김효정 교수의 '소아청소년의 뇌전증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의국동정

소아청소년과, Pediatric Grand Round(PGR) 개최



소아청소년과는 전공의, 전문의, 학생 간의 의학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Pediatric Grand Round (PGR)를 개최하고 있다.

제1회 PGR은 9월 7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화기영양분과 고재성 교수님이 Neonatal Cholestasis를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제2회 PGR은 11월 9일 의과대학 502호에서 가천대 길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팀이 호흡곤란 증후군(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박효연 전공의가 호흡곤란증후군의 임상양상, 진단 및 치료경과에 대한 증례발표, 손동우 교수님이 호흡곤란증후군 질병에 대한 전반적 리뷰, 김은진 전임의가 Stable microbubble test 에 대한 소개, 김동완 전임의가 Surfactant 에 대한 종류와 효과적인 투여방법에 대해 발표하였다.

소아과 전공의, 인턴, 학생, 전문의가 모두 모여 발표 후 활발한 질문 및 토의가 오가는 자리가 되었다.

의국동정

소아청소년과, 제2회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예정



소아청소년과는 2016년 12월 제1회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연수강좌 (위 사진) 개최에 이어, 2017년 12월 9일 제2회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를 앞두고 있다.

가천의대 설립 20주년을 목전에 두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발전하게 된 데에는 많은 지역 사회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컸으리라 생각하고,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역량을 키울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연수강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의학교육소식

2017학년도 의학교육세미나 개최



2017학년도 의학교육세미나가 6월부터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의학교육세미나 주제로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세의대 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운영 경험, 임상표현형 중심의 외과 학생 통합 임상실습, 의대생에게 환자공감서비스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의과대학 Flipped Learning 운영 경험, 의학교육에서 Inter-Professional Education(IPE)이란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교수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학교육세미나 개최를 통해 의학교육의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우리대학의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의학교육소식

2017학년도 학외선택실습 발표회



2017학년도 학외선택실습 발표회가 지난 11월 3일(금)에 의과대학 신축건물 3층 통합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학외선택실습은 3학년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학외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또는 임상실습을 통한 다양한 경험은 물론 의료/의학 세계의 현실을 폭넓게 이해하여 졸업 후 진로를 미리 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국외대학으로는 독일의 아헨, 샤리테, 하이델베르그, 일본의 니혼대학에서 11명이 실습을 하였으며, 국내 기관으로는 실습 협력 기관인 인천의료원, 힐세리온을 비롯한 국내 의료 및 연구기관에서 30명이 실습을 완료하였다.



Gachon Pride

가천대 의과대학 / 의전원 소식지 | 제20.21통합호 | (2017. 12. 04.)

의학교육소식

2017학년도 의예과 봉사실습

봉사를 통해 만남의 의미를 새기다.

의예과 최민기

아름다운 생명사랑으로



2017년 10월 14일과 11월 11일, 가천대학교 의예과 학생들이 2개의 조로 나뉘어서 '의학과 봉사' 수업의 일환인 봉사실습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동안 강의실에서만 배워왔던 봉사정신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 활동 장소인 '아름다운 생명사랑'으로 떠났습니다.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아름다운 생명사랑'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과 교육 및 연구 사업을 통하여 존엄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꽃 피우기 위한 생명사랑운동체입니다. 2003년에 창립되어 복讎어린이영양제지원, 어르신택 대청소 봉사잔치, 가정방문보건의료사업, 생명사랑의료캠프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사랑'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성남에 위치한 의예과 캠퍼스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어르신들을 만나고 봉사를 하러 가는 설렘으로 즐겁게 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 기관 관계자 분들과 교수님들께서 힘들게 온 학생들을 반겨주셔서 더욱 더 활기차게 하루 일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를 위한 배움

본격적인 봉사에 앞서 먼저 봉사활동에 대해 배우고 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원모 예방의학과 전문의, 손흥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사장 사회복지사님께서 '아름다운 생명사랑'의 건립 취지와 활동 연혁을 설명해 주셨고, 지역보건의료활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소중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대형 대학병원이나 대도시의 병원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회취약계층이 많은, 의사들의 수가 적은 저개발 지역에서의 의료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뵈어 그들을 보살피고 마음을 나누는 것 또한 행복이며 진정한 봉사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경험과 함께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의학교육소식

2017학년도 의예과 봉사실습

여러 좋은 강의를 경청하며 학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가 어떤 의사들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은 후에는 현장에서의 의료행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아직 예과생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할 수 있는 혈압 측정, 마사지 등의 방법을 전문의에게 직접 배워 볼 수 있었습니다. 미숙한 예과생들에게도 친절히 설명을 해주셔서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청강과 간단한 실습으로 오전 시간을 마치고 점심으로 기관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제공해주셨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전문의, 복지사 분들과 더욱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휴식시간에는 바로 뒤편에 있는 북한산의 작은 계곡에서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노곤함을 푸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의 봉사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가진 후에 조를 나누어 봉사활동을 하러 직접 떠났습니다. 전문의분들과 복지사 분들은 물론 '아름다운 생명사랑'에서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의학과, 간호학과 학생 분들과 함께 조별 활동을 하였습니다. 출발에 앞서 조별로 모여 서로 친해지고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고 봉사 경험이 많은 전문의, 선배님들이 현장에서의 주의사항과 하게 될 활동을 설명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조가 독거노인분들을 찾아가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사기관에서 버스를 탄 후에 골목골목을 따라 독거노인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Gachon Pride

가천대 의과대학 / 의전원 소식지 | 제20.21통합호 | (2017. 12. 04.)

의학교육소식

2017학년도 의예과 봉사실습

노인분들이 거주하시는 환경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기본적인 환기가 잘 안되고 화장실, 부엌, 안방의 구분이 잘 되지 않았고 공간도 너무 작았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미소를 보며 더욱 진심으로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구입한 음료수, 과자, 생필품들을 전달하고 노인분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였습니다. 혈압을 재고 약은 잘 드시는지 확인하고 또 다른 신체적인 불편사항은 없으신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들 행복하기도 하고 슬픈 기억을 가지고 계셨고 다른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또 비록 지금은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지만 인생 경험을 자세하게 들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생명에 대한 굳센 의지와 긍정적이면서 우아한 생활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천대학교 학생들은 전문의와 선배님들의 의료진단과 경청하는 모습을 따라하며 최대한 진정성이 있는 봉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소중한 만남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이별과 봉사의 마무리

독거노인분들을 만나 뵙고 다시 기관으로 돌아오며 짧고도 긴 하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 소감을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만남의 의미를 중요하게 느꼈다는 소감을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예비 의료인으로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전문의분들, 의료계 선배님들, 독거노인분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뜻 깊었고 오히려 하루 동안 힐링이 되었다는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의학교육소식

2017학년도 의예과 봉사실습



만남을 통해 봉사가 시작되는 만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만남과 소통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드려서 굉장히 뿌듯했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봉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봉사를 통해 만남의 의미를 새기는 과정이 오늘 활동의 핵심이었고 이는 향후 멋진 의료인이 되어 진정으로 필요한 의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작성하였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봉사의 의미와 현장에서의 봉사의 의미가 하나가 되어 가천대학교 의예과 1학년 학생들에게 더욱더 뜻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의학교육소식

2017학년도 해외 학외임상실습

샤리테 해외 학외임상실습 (G3 최동빈, 허준)

여름 방학 4주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샤리테 병원의 일반 외과로 해외 임상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의료 선진 국가들 중 하나인 독일의 병원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의사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직접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Campus Benjamin Franklin 병원 정문 >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하루 일과의 시작은 회진과 컨퍼런스입니다. 아침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컨퍼런스에서 예정된 수술 및 환자와 관련하여 의논을 합니다. 이후 각자 진료 및 수술 등의 업무를 하며 이후 오후 컨퍼런스에서 다시 한 번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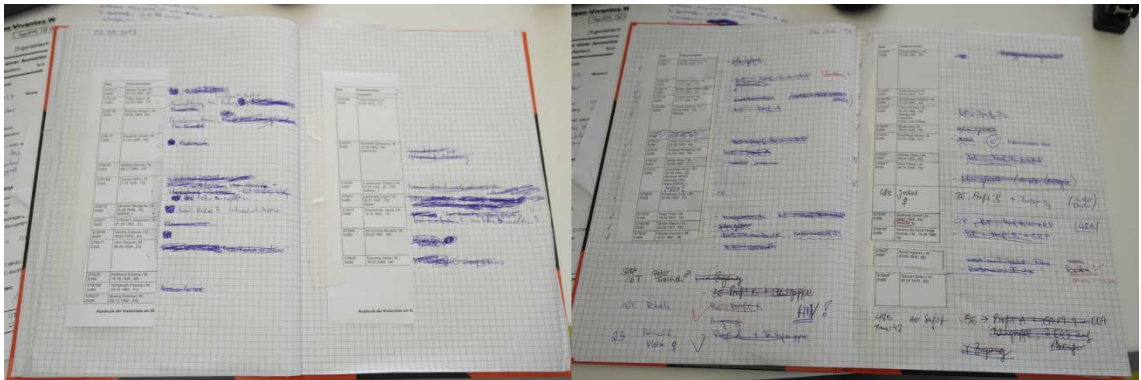
의학교육소식

2017학년도 해외 학외임상실습

샤리테 해외 학외임상실습 (G3 최동빈, 허준)

하지만 독일에서는 흉부외과가 없고 흉부외과 의사의 역할을 일반외과 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일반외과 의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일반외과 훈련 과정이 5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의학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법한 의사이지만 바로 개업의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18개월간의 의무적인 실습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실습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교수님을 따라다니기 보다는 능동적인 주체로서 행동합니다.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채혈하는 등의 간단한 술기를 하거나, 서로에게 초음파 등의 기구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실습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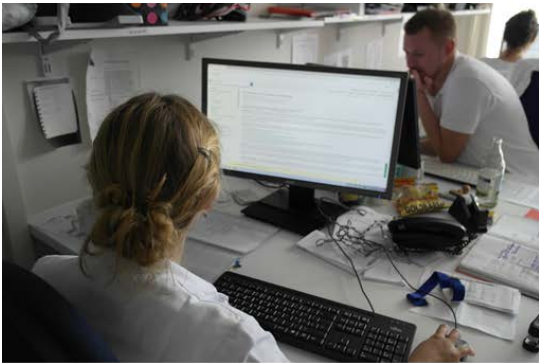
< 실습생들이 해야할 일을 적은 노트 >

또한 수술을 참관할 때도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어느 누구도 자유롭게 수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단한 탈장 수술에 참여하였는데, 교육에 집중하느라 수술 시간이 많이 길어지기도 하였고, 응급실에서는

의학교육소식

2017학년도 해외 학외임상실습

샤리테 해외 학외임상실습
(G3 최동빈, 허준)



<서류 작성 및 술기 연습 중인 실습생>

충수돌기염 의심 환자 대상으로 신체진찰을 해보고 환자 앞에서 교육을 하는 등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우선 각 병실이 최대 3인실로 기본이 6인실인 우리나라에 비하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수가 많이 적습니다. 또한 외래 진료 및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의 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환자들로 붐비고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의사와 다르게 샤리테 병원 의사들에게서 보다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 적절하며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전공의 특별법 등 근무시간과 관련한 법안이 제정되어 일부 실행중이지만 독일은 이보다 더 엄격하게 근로와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휴식이 보장되어 있고 여유로운 삶이 있는 독일 의사의 모습이 한국 의사와 대비되면서 한국도 그러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방학 동안 잠시 학교와 병원에서 벗어나 다른 생각과 체계를 가진 국외 병원에서 공부하고 새롭게 생활해 봄으로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이 되었습니다.



Gachon Pride

가천대 의과대학 / 의전원 소식지 | 제20.21통합호 | (2017. 12. 04.)

의학교육소식

2017학년도 국내 학외임상실습

헬스브리즈 국내 학외임상실습
(G3 조성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재학 중 4주간의 국내 혹은 국외 학외 실습을 다녀와야 하는 커리큘럼이 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은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실습을 진행한다. 어떤 학생은 해외 다른 의과대학으로 실습을 나가 우리나라의 의학교육이나 병원실습과 어떻게 다른지 겪어보기도 하고(물론 잠깐 동안의 해외여행은 덤이다), 어떤 학생은 국내 연구기관으로 실습을 나가 평소 관심이 있었던 연구분야에 대해 공부해 보기도 하며,

다른 학생은 미래에 하고싶은 임상 분야에 대한 선행학습의 개념으로 일반 개인병원이나 의원에서 실습을 진행 하기도 한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 보다 실습에 임하는 학생이 어떤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4주의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는 동기들, 혹은 선배들이나 후배들과 비교해 보아도 나이가 조금 많은 학생에 속한다. 불타는 20대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6년짜리 학제인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는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다. 거기에 군대도 다녀온 예비역이고 또 검사검사 2년정도 학교 공부보다 아닌 다른 일에 한눈을 파느라 시간을 보냈으니, 30대에 의전원에 입학한 것이 썩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런 나의 20대를 돌이켜 보면 항상 한눈 파는 것을 좋아했다. 방학때면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 한번은 게임에 미쳐 밥도 굶어가며 게임만 하기도 했으며, 밴드생활을 하며 보컬레슨 학원을 다녔고, 한때는 운동에 미쳐 하루에 5시간씩 운동만 하기도 했었다. 아마 그렇게 살아 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더욱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의학교육소식

2017학년도 국내 학외임상실습

헬스브리즈 국내 학외임상실습 (G3 조성하)

그래서 나는 이번 학외실습도 항상 해 왔던 것 처럼 한눈을 팔아보기로 했다. 일단 해외로는 죽어도 나가기 싫고(이미 많이 나가봤기 때문은 아니다), 어차피 임상이야 3학년, 4학년 그리고 이어지는 인턴과정 수련의과정에서 질리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4주동안도 임상실습을 해야하나? 하는 의문이 들었기에 패스했다. 고민하던 와중에,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강의에서 '헬스브리즈' 대표님께서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머리속에 '바로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대표님께서도 외과전문의로 대학병원 외과과장님을 지내셨을 정도로 지식과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셨다. 그런 분께서 병원생활을 접고 나오셔서 벤처회사를 스타트업 하신 이유가 매력적이었다.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혹은 일반 국민들에게 어려운 의학지식을 잘 전달하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부터 '헬스브리즈' 라는 회사가 시작되었다. 나 역시 수의사를 준비하며 혹은 수의사로써 보호자를 대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더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내가 하고싶은 말을 전달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기에 주저하지 않고 학외실습을 '헬스브리즈'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음 원고를 작성하기에 앞서, 먼저 '헬스브리즈' 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헬스브리즈'는 의학정보나 지식을 알기쉽게 설명하는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라고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의 대중적인 질병에 대해서 발생하는 원인, 질병과 관련된 장기의 해부학적인 특징, 치료법, 예방법 등 전체적인 내용을 시각화 하여 2D 혹은 3D 애니메이션을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쉬운 용어를 사용한 설명을 더빙으로 덧붙여 더 높은 이해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인기 유튜버 '캐리언니' 의 의학정보버전 정도라고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의학교육소식

2017학년도 국내 학외임상실습

헬스브리즈 국내 학외임상실습 (G3 조성하)

실습기간동안 나의 목표는 확고했다. 첫번째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학정보나 지식을 잘 추려내고 그 정보를 어떻게 전달 할 것인지 기획하는 연습을 하고자 하였다. 두번째로, 기획한 대로 애니메이션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콘티를 짜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를 보고 싶었다. 세번째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그 효용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나는 임상현장 밖에서 그 임상현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기로 했다.

실습과정은 역시나 쉽지 않았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회사까지 출퇴근 하는 일이었다. 길병원이 있는 인천 구월동에서부터 회사가 있는 가산디지털단지까지는 버스-지하철 환승 혹은 지하철-지하철 환승으로만 이동이 가능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었다. 하루 24시간 중 거의 15%정도를 차지하는 시간을 이동하는데만 써야하다니!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책을 읽었다. 버스-지하철 환승은 몇 번 해보니 불편한 점이 많아 지하철-지하철 환승으로 출퇴근을 하였는데,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권씩을 독파하여 실습기간동안 총 3권의 책을 읽었다(중간에 휴가가 몇일 있어서 그 기간동안에는 나도 좀 쉬었다). 한가지 여담을 하자면, 지하철 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고 있는 광경이, 말로만 듣던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니 뭐랄까, 그냥 많은 감정이 뒤섞여 들었다. 다들 그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기에 좋다 나쁘다의 평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의학교육소식

2017학년도 국내 학외임상실습

헬스브리즈 국내 학외임상실습 (G3 조성하)

회사에서 나의 업무는 사실 그리 많지 않았다. 많이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없기에 회사에 있는 시간 동안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자 하였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들을 보면서 이 콘텐츠를 왜 기획하였는지, 무슨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지 살펴보고 혹시나 애니메이션 혹은 더빙에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였으며 새로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획부터 콘티제작, 대본작성 및 애니메이션 자료 검토 등 사실상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작업을 압축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3주쯤 되었을 때 새로 제작하는 콘텐츠 중에서 '목디스크의 개념과 치료' 라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내손으로 만들어볼 기회가 생겼다. 먼저 어떤 내용을 크게 나누어 해부학적 내용, 목디스크의 개념, 원인, 예방법, 치료법으로 구분하고 정보를 정리한 후 대본을 작성하여 더빙하는데 원고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애니메이션에서는 2D이미지와 3D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였는데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보여줄 때에는 3D이미지를 회전시키는 방식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페이드인-페이드아웃 방식을 이용하여 시각적전달을 극대화 하였고, 예방이나 치료법 등은 간단한 2D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소 많은 내용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렇게 콘티를 작성하고 애니메이션 제작팀과 함께 각 Scene별로 플레이 시간이나 이미지의 배치와 이미지 전환을 구성하고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위에 더빙까지 입혀서 약 5분가량의 콘텐츠를 만들었다. 다 만들어진 콘텐츠를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여 혹시라도 정보의 오류는 없는지, 이미지는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더빙에서의 실수나 오류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마무리 하였다.



의학교육소식

2017학년도 국내 학외임상실습

헬스브리즈 국내 학외임상실습 (G3 조성하)

요즘 세상에 정보는 넘쳐나고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도 수만가지로 많은 와중에도, 유독 의학정보나 지식은 아직도 접하기가 어렵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접하기는 쉽지만 잘못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야겠다. 종편이나 케이블TV,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로 수도없이 많은 의학정보가 쏟아지기는 하지만, 의료인이나 의료관련인이 아닌 이상 그러한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의 욕식을 가려내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이 무엇인지를 골라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의전원생인 내가 보아도 가끔은 TV에서 한심한 소리를 하는 의사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런 정보들을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반 대중들은 어떠할 것인가. 말기 암에 걸려 병원에서는 시한부인생을 선고받았지만 산속에 들어가서 5년 살았더니 암이 완치되었다는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방송에서는 해대고 있으니, 글썄, 나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세상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 작게 보이지만 결국 세상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왔다. 그래서 이번 실습기간 동안 그 고민 중 한가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답을 찾기위해 한눈을 팔았다. 그리하여 먼저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 환자들에게 건강관리나 병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오해없이 오류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방법의 하나인 의학콘텐츠 제작에 대한 실습이 나에게 더 뜻깊게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학생소식

의대/의전원 학생주최 체육대회



지난 9월 2일 메디컬 캠퍼스 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학생회 주관 체육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총장님, 의무부총장님, 의대학장님 등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정과 친목을 다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소식

2017학년도 가천 문화제



- 일시: 2017.09.16일(토) 14:00~20:00
- 장소: 가천대길병원 응급센터 11층 가천홀

학생회 주관으로 동아리의 1년간 활동과 실적을 발표하는 가천문화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동아리 별 특성과 끼를 발산하는 즐거운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Gachon Pride

가천대 의과대학 / 의전문 소식지 | 제20.21통합호 | (2017. 12. 04.)

학생회 소식

제21대 학생회장 선거 결과 공고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제 21대 학생회 선거 당선 공고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제 21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의거, 개표 결과의 당선지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실 투표율

전체 투표율 : 92.62% (전체 학생 217명 중 총 201명)
총 원 : 217명
결 원 : 16명

개표 현황

| 구분 | 찬성 | 반대 | 무효 |
|------|-----|----|----|
| 실투표수 | 191 | 6 | 4 |

개표 결과, 학생회장 후보 김성식, 부학생회장 후보 임채린은 191표 (유효투표의 95%)의 찬성표를 얻어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21대 학생회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제 20 대 학생회





Gachon Pride

가천대 의과대학 / 의전원 소식지 | 제20.21통합호 | (2017. 12. 04.)

학생회 소식

제21대 학생회 임원 명단

| 직책 | 이름 | 학년 |
|----------|-------|---------|
| 회 장 | 김 성 식 | 의학과 1학년 |
| 부 회 장 | 임 채 린 | 의학과 1학년 |
| 총 무 | 정 대 승 | 의학과 1학년 |
| 봉사부장 | 김 정 현 | 의학과 1학년 |
| 문화부장 | 김 채 은 | 의학과 1학년 |
| 체육부장 | 정 준 수 | 의학과 1학년 |
| 기획-진행 부장 | 남 기 진 | 의학과 1학년 |
| 시설부장 | 백 진 욱 | 의학과 1학년 |
| 골학부장 | 남 건 우 | 의학과 1학년 |
| 홍보부장 | 박 소 영 | 의학과 1학년 |
| 대외협력부장 | 황 익 준 | 의학과 1학년 |



Gachon Pride

가천대 의과대학 / 의전원 소식지 | 제20.21통합호 | (2017. 12. 04.)

주요일정

- 12.20.(수) 17:30, 전체 주임교수 회의, 3층 통합강의실
- 2018.01.09.(화).~10.(수), 제82회 의사국가시험(필기)
- 2018.01.20.(토), 2017학년도 교육과정평가 워크숍
- 2018.02.20.(화)~24.(토), 2018학년도 해부학 OT
- 2018.02.24.(토), 2017학년도 2학기 전체교수워크숍

▪ 학생신문고 이용 안내

학생신문고 이메일(pride@gachon.ac.kr)을 운영 중입니다. 타 학생, 교수, 기타 대학 구성원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았을 때, **익명 제보나 건의**가 필요한 경우 등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천 의대의전원 소식지 Gachon Pride는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우리 학교의 교수/학생/학부모/동문/교직원의 자랑스럽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계간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으로 발간됩니다. 이전, 이후 3개월간의 소식과 향후 계획은 물론, 나누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을 발간일 전달 20일까지 프라이드 담당 전자 메일(medi-pr@gachon.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Proud Gachon! Have a Gachon Pr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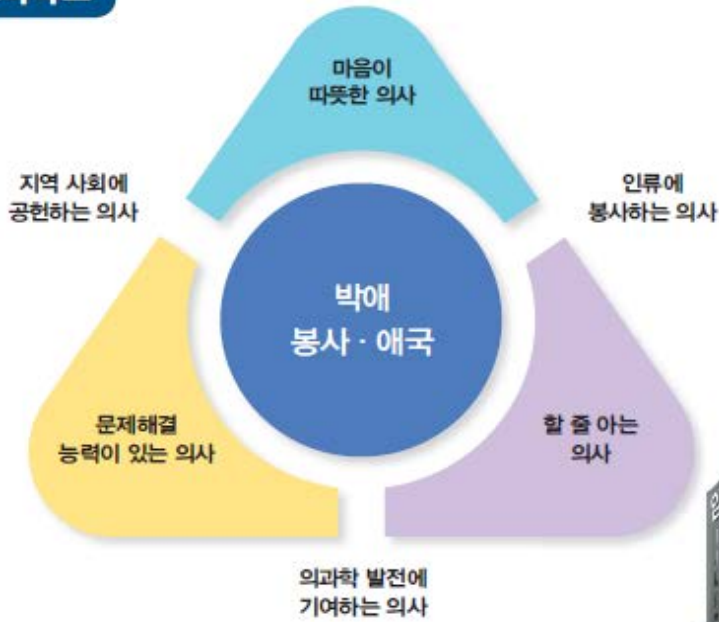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교육목적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박애 · 봉사 · 애국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전문적 자질을 갖추고,
사회가 필요로 하며,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목표



가천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 | | | | | | |
|-----------------------------|----------------------------------|---|---|-----------|-----|--|
| 약정자 | <input type="checkbox"/> 개인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생년월일 | 월 일 (음·양) | | |
| 약정자 | <input type="checkbox"/> 기관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대표자성명 | | | |
| 학교와의관계 | <input type="checkbox"/> 교수 | | <input type="checkbox"/> 직원 | | | |
| | <input type="checkbox"/> 학부모/재학생 | 학생성명 : | 학과/전공 : | 입학연도 : | | |
| | <input type="checkbox"/> 동문 | 학과/전공/대학원 : | 입학연도 : | 졸업연도 : | | |
| | <input type="checkbox"/> 일반인 | | | | | |
| 연락처 | 주택주소 | | <input type="checkbox"/> 우편수령지 | ☎ | | |
| | 직장주소 | | <input type="checkbox"/> 우편수령지 | ☎ | | |
| | E-mail | | | | 휴대폰 | |
| 기부용도 | | <input type="checkbox"/> 의학발전기금 <input type="checkbox"/> 사용처 지정 () | | | | |
| 참여방법 | <input type="checkbox"/> 현금 | | 약정금액 원정 (₩) | | | |
| | | | <input type="checkbox"/> 일시납 <input type="checkbox"/> 분납 (원 × 개월 /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 | | |
| | 납부방법 | <input type="checkbox"/> 급여이체 | (교직원 번호 :) * 재직 교직원에 한함. | | | |
| | |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 신한은행 140-008-075672 예금주 : 가천대학교 (입금예정일 : 년 월 일) | | | |
| <input type="checkbox"/> 현금 | | 내용 : | | | | |
| 기부동기 | | <input type="checkbox"/> 학교소식지/바람개비 기사 <input type="checkbox"/> 학교홈페이지 방문 <input type="checkbox"/> 동문회 및 동문행사 <input type="checkbox"/> 권유(소속: 성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당부하고 싶은 말씀 | | ※ 발전기금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재되오니 기부자님의 말씀을 남겨주세요. | | | | |
| 개인정보 처리 동의 | | 뒷면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가천대학교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등 처리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_____ (서명) | | | | |

※ 약정서 제출처(가천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우편 2156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 3번길 38-13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2층 206호 행정실
 Tel: (032) 458-2500 Fax:(032) 458-2519 E-mail: mede-pr@gachon.ac.kr

위의 내용으로 가천대학교 발전기금에 참여합니다.

201 년 월 일
 약정인/기관 _____ (서명)

가천대학교 총장 귀하

[가천대학교 발전기금 개인정보처리방침]

가천대학교는 발전기금 기부(약정)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1. 가천대학교는 기부(약정)자의 기부금 관리, 기부금 영수증 발행, 과세, 기부(약정)자 혜택 제공을 위하여 수집 및 이용합니다.
2. 가천대학교는 1.에 따른 수집 및 이용 목적을 위하여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학교와의 관계, 연락처, 납부를 위한 정보(교직원 번호, 계좌번호 등)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가천대학교는 1.에 따른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또는 법령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합니다.
4. 가천대학교는 1.에 따른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기부(약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5.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통지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부(약정)자는 언제든지 가천대학교 발전기금팀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신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가천대학교는 기부(약정)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약정)자의 기부사실에 대하여는 발전기금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7. 가천대학교는 기부(약정)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8. 가천대학교는 기부(약정)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습니다. 가천대학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에 관한 문의 및 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연락처

소 속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연락처 : 031-750-5268 / E-mail : gcfund@gachon.ac.kr

이상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였습니다.

201 년 월 일

약정인/기관 _____ (서명)